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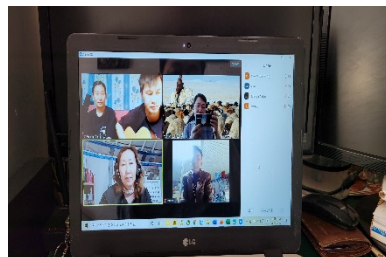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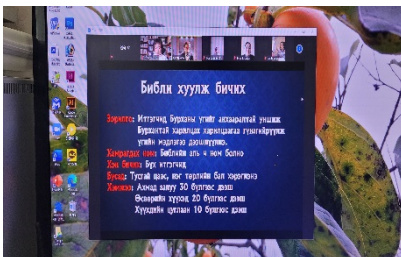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각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께-2021년 여름~가을 선교편지 드립니다.

현재 몽골상황: 전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피로감으로 사람들이 느슨해져 가고 있습니다.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진자에 비해 사망자가 아주 적게 나오는 모습을 보며, 심한 독감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종종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도 보이고, 도심속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어떤 행사를 할 때 마스크를 안쓰고 사진촬영들을 하거나, 마스크 없이 다른 사람과 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월1일이 새학기(새학년)인데 새학기부터는 대면으로 수업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교회 모임은 열어주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아마 몽골정부가 종교기관은 굳이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봄에 선교편지를 드린 뒤 크게 달라진 상황은 없습니다. 락다운 상태가 해제되어 마치 코로나가 없는 상황속에서 사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여전히 위험이 내포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일일 평균 1,000~1,100명 정도)도 줄어들지 않고,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하게 풀어지고 있습니다.

1. 줌으로 드리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해 사람들의 신앙생활 자세가 많이 느슨해졌고, 게을러졌습니다. 저희 3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은 울란바타르 서쪽 끝(외곽)이라 인터넷망도 많이 부족하고(기지국이 거의 없음, 인터넷 선이 안들어 온 곳이 많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 온라인 예배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연결하지 못하는 구형 핸드폰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 인터넷 연결이 어렵습니다. 3교회는 젊은이들도 보다 나이든 분이 더 많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2교회 지역은 팬찮은 편입니다. 2교회에는 도심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도심속에 속해 있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음), 인터넷 사정도 괜찮고, 젊은 리더들이 많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2. 3교회 창립 6주년 기념 주일

한국의 광주 영락교회(담임: 주계옥 목사)가 땅과 건물을 마련하는데 기꺼이 후원해 주셔서 개척된 지 벌써 6주년이 되었습니다. 가난속에서 별 희망없이 살아가는 지역이라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 주셔서 교회가 개척되게 되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교회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부족



함이 없습니다.

3. 체그밋드(체기) 리더

체기(몽골 사람들은 이름이 길어서 보통 줄여서 부름)는 교회를 출석할 때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57세 남성입니다. 교회에 나온지는 4년,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한 지는 2년 반쯤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글도 잘 모르고(떠들떠들 읽음), 말도 잘 할 줄 모르는 그야말로 촌티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올 때, 부인과 자녀 2명이 있었는데, 자녀는 둘 다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고 있습니다. 부인과 함께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나온지 얼마 안되어 부인이 바람이 나서 나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체기는 자기 친형이 하는 조그만 회사의 경비로 일하다가 지금은 그곳도 그만두고 교회에 들어와 사찰집사처럼 살고 있습니다. 친형이 하는 회사라 해고 염려는 없었지만, 그곳 경비를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 교회가 좋아 틈날때마다 늘 교회에 와서 살곤 하였는데, 비록 친형이지만, 불신자 입장에서는 좋아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만두게 되었고 지금은 교회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되었을 때, 광주 영락교회에서 후원한 현금으로 우물을 파고 수도시설을 갖춘 다음 동네 사람들에게 물을 판매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종일 우물을 지키며 물을 판매하되, 물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진도하도록 하였는데,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왔다가 코로나로 못들어가고 있는 사이, 회사 경비를 그만두게 되었고, 제가 몽골에 들어가서 보니, 교회 목양실 겸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가져다 놓았던 컨테이너에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체기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성경책도 잘 읽어내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도 별로 없던 사람이 입이 열리니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쓰는 것도 안되어 큐티를 기록하는 일도, 문서(우물일지)를 작성하는 일도 서툴렀는데, 지금은 잘합니다. 쓰는 작업이 안될 때, 체기가 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거나, 성경공부를 가르칠 때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평일날 여러번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랬던 그가 지금은 어느정도 글도 읽고, 글도 쓰고, 말도 잘하는 것을 보니 역시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없어서는 안될 장년 리더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궂은 일은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사찰집사 겸 전도사가 있지만, 그 분이 여성이라 힘든 일을 체기가 도맡아서 하고 있고, 밤에는 든든한 경비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29일
박인옥, 이현주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1. 성도들의 식어진 마음에 하나님 자신과 그를 예배하는 열망이 일도록
2. 교회를 떠난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3. 큐티와 성경필사가 잘 진행되어 식어졌던 믿음이 다시 굳건해지도록
4. 코로나 대확산 속에 성도들과 우리의 안전, 생명을 지켜주시도록